전남 동부 소나무 재선충 급속 확산

여수·순천·광양 114ha 발생 초비상

작년 10월 첫 감염 후 초기 방제 실패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材線蟲)이 여수·순천·광양 일대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등 확산하고 있다.

전남도는 여수시 평여동 일대를 비롯, 순천시 해룡면과 광양시 진상면 일대 114.3ha에서 지난해부터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으로 137그루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재선충은 길이 1㎜가 안될 정도로 작지만 소나무 수액 이동 통로를 막기 때문에 한번 감염된 소나무는 100% 고사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여수시 평여동 첨산 일대에서 처음으로 재선충이 발생한 뒤 여수·순천·광양에서 모두 66그루가 죽은데 이어 올 들어서도 이 일대에서 71 그루가 추가로 발병하는 등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지역별로는 여수의 경우 올해 46그루의 나무가 재선충병으로 죽는 등 지난해부터 97.3ha에서 103그루가 피해를 입었다. 순천은 지난해(4그루)보다 늘어난 14그루가 재선충으로 죽었고 광양에서도 8ha에 걸쳐 16그루가 발병했다. 순천·광양에서는 지난해보다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등 확산 조짐도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추가 발병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재선충병 방제대책본부를 가동, 운영하면서 발생지역 반경 5km 지역에 대한 항공·지상정밀 예찰을 실시하는 한편, 감염 및 피해목을 발견하는 즉시 전량소각·폐기하는 등 확산 차단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일단 감염되면 방제가 어려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또 3만1272ha에 달하는 면적을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여수와 순천 등에 이동단속초소 2곳을 운영하는 한편 피해지역 내 198ha에 걸쳐 소나무 예방주사를 접종하고 있지만 일단 감염되면 방제가 어려운 탓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방제작업으로 감염 차단에 나서고 있지만 동부지역 소나무 재선충병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면서 "2015년까지 청정지역 지정을 목표로 신속한 방제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에서는 지난 2001년 목포 유달산에서 첫 발생해 영암·신안에 걸쳐 23ha가 피해를 입었다가 지난해 청정지역 지위를 회복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檢, 교비횡령 광주여대 압수수색

전 총장 등 4명 출국금지

검찰이 총장 개인 가사도우미의 급여를 교비로 지급해 물의를 빚은 광주여대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오장원 전 총장 등 대학 관계자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천)는 6일 광주여대에 수사관들을 보내 행정지원처와 기획조정처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승합차 1대와 승용차 2대 분량의 예산 집행내역, 교직원 채용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등 교직원이 교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는지, 채용과 계약 등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광주여대는 최근 학교 예산을 유용하거나 수의계약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오 전 총장 등 9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특히 오 전 총장 부부는 대학 예산에서 가사도우미 급여로 수천만원을 빼낸 것으로 조사돼 비난을 사기도 했다. 설립자의 장남인 오 전 총장은 이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23일 총장에서 물러났다.

이 대학은 설립자 가족이 이사장과 총장, 교수 등을 맡아 대학 운영을 주도해 왔다.

해당 대학 측은 "경찰 수사의 연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학 구조조정을 촉구하는)사회 분위기에 따라 시범 사례가 되지 않을지 우려되지만, 우리 대학은 충원율 등 지표로 보나 운영실태로 보나 건전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장애인 휠체어 운행자 안전교육

광주시 북구와 북부경찰서 소속 직원들이 6일 각화동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장애인휠체어 운행자 200여명을 상대로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교장이 리베이트 요구했다"

납품업자 진정 접수… 도교육청 감사 착수

화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교장실에서 교구납품 업자에게 구매 리베이트(사례비)를 요구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전남도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구납품업자인 A씨는 '장만채 신문고'와 교육청 민원실에 접수한 진정서에서 B교장이 지난 4월 교장실에서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다. 다른 업자는 리베이트로 15%를 준다더라. (당신은) 얼마를 주겠느냐, 우리집 가구도 와서 한번 봐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내용의 진위와 실제 교장의 자택에 납품된 150만원 상당의 가구 등의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조사결과 이 업자는 지난달 해당 교장의 광주 자택을 방문해 식탁, TV 장식장(2개), 전화받침대, 화장대 거울 등 150만원 상당의 가구를 들여놓았다.

그러나 B교장은 반품을 요구하고, 내용증명을 A씨에게 발송했다. 최초 A씨로부터 320만원 상당의 교장실, 교무실 등의 집기를 구매한 이 학교는 이후 더 이상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다.

해당 학교장은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로서 예산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 업자에게 이익의 일부를 서비스 품목 등으로 돌려줄 것을 설명했는데 리베이트로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초등학교 일부 운영위원과 학부모 등은 B교장이 행정실장을 지난해 3월 이후 3차례나 교체하는 등 독선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며 반대집회를 열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스폰서 검사' 한승철 전 검사장

면직 취소소송 승소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에게서 향응을 받는 등 '스폰서 검사' 사건에 연루돼 면직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이 면직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한 전 검사장은 복직하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6일 한 전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전 검사장이 정씨에게서 현금 100만원을 받은 부분과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전 검사장은 2009년 3월 정씨에게서 14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받고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지난해 7월8일 면직처분을 받은뒤 민경식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국제범죄사범 한달새 36명 검거

위장결혼·유학생 비자 입국 취업 적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불법 체류를 위해 위장결혼을 하거나 유학생 비자로 입국해 취업하는 등 외국인 범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6월 한달 동안 서남해 국제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국제범죄사범 36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단속 유형별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위반 11명, 문서위조·부정사용 5명, 위장결혼 4명, 외국인 무허가 취업 알선 2명 등의 순이었다.

경찰은 지난달 1일 군산 앞 해상에서 타인의 어업허가증으로 불법 어업 활동을 한 중국인 선원 쑨모(39)씨 등 3명을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구속했다. 또 국내 취업을 위해 중국·한국인 알선브로커와 결탁, 목포에 사는 한국인 여성과 위장결혼한 중국인 김모(52)씨 등 4명을 검거해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지난 5월2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자신의 양식장에서 일하던 중국인 1명의 고용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은 완도군 S수산 업주 박모(52)씨 등 외국인 고용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주 11명을 입건했다.

이외에도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화성시 궁평항에 무허가 취업소개소를 차려놓고 외국인 등 2761명에게 직업을 소개시켜 주고 알선료 명목으로 1인당 1만원씩 모두 2761만원을 챙긴 노모(54)씨를 적발하고, 유학생 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불법취업한 중국인 정모(여·40)씨도 검거해 강제 출국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달 3일에는 목포시 죽교동 해안으로 소형선박(선외기)을 이용, 취업을 위해 밀입국한 고모(44)씨와 묘모(40)씨 등 중국인 2명을 붙잡았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범행 공모 혐의 이병 긴급 체포

본인 "가담 안했다" 부인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해병대는 6일 총기사건을 일으킨 김모 상병(19)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같은 부대 정모 이병을 긴급 체포했다.

국방부조사본부의 김영수 수사2과장은 "사고자인 김 상병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정 이병을 새벽 1시께 긴급 체포했다"면서 "현재 정 이병은 실제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자세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상병과 정 이병은 "우리가 구타를 없애 버리자"고 했으나 정 이병이 실제 범행에 가담했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김 과장은 말했다.

김 과장은 "김 상병은 두 차례 조사에서 정 이병과 함께 총기와 탄약을 절취했다고 말했지만, 정 이병은 전혀 가담하지 않았고 공중전화 부스 옆에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상병의 진술도 오락가락하고 있다"면서 "사건 당일 김 상병과 정 이병의 동선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너무 많다. 추가 공범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정 이병은 지난 4월 전입했으며 자대에 배치되는 모든 신병과 같이 자동으로 관심병사로 분류됐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정 이병은 스스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김 상병과 가까이 지냈다"면서 "두 사람은 함께 사고 치고 탈영하자고 했다. 그러나 정 이병은 실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수 과장은 "현재 김 상병은 기도 삽관을 제거해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한 상태이지만 전우들이 사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처벌에 대한 불안 심리가 고조된 상태"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역일은 언제하고…

광주 북구의원 회기중 화투판 '망신살'

광주시 북구의회 의원들이 회기 중 화투판을 벌였다가 경찰에 적발돼 망신을 샀다.

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북구의원 2명은 이날 오후 4시께 북구 풍향동 한 의원 사무실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속칭 고스톱을 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판당 승자가 딴 돈 가운데 일부를 내 모인 돈으로 저녁 밥값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화투를 친 4명과 이를 구경한 다른 구의원 1명, 지인 등 6명이 있었으며 각자의 소지품을 검색한 결과 모두 11만7000원이 나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판돈이 크지 않고 밥값 내기 차원에서 화투를 친 점 등을 고려해 구의원들을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록 입건하지는 않았지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구의원들이 회기 중 화투를 친 것은 비난 받을 만 하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먹이 구하러 도심 한복판 고라니 출몰

쌍나팔

○…대낮 광주 도심 한복판 상가에 고라니가 나타나 119 구조대가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

○…6일 광주동부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께 광주시 동구 충장로 1가의 한 상가건물 계단에 고라니 한마리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 동부소방서 구조대원이 출동해 10여분만에 포획.

○…119 구조대는 포획 장비로 고라니를 안전하게 잡아 무등산에 풀어줬는데, 구조대 관계자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도심까지 내려온 것 같다"고 설명.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9급 공무원 시험 [국가직 지방직]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 9급 종합반 | 법원서기보 | 9급 소방직(전문) | 민경 "강력단과" | 7·9급 검찰직 | 9급 야간반 | 농업직/기술직
SMART 전략!
일반직 전환특채 주말반
이 론 반 (8주완성) 7월 9일 ~ 8월 28일
문제풀이반 (6주완성) 9월 3일 ~ 10월 16일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